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10>

## 털종나리

- 학명 *Lilium amabile* PALIBIN
- 영명 Eastern Spot-billed Duck

여름에 산을 오르다 보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나리들을 만나게 된다. 나리들은 그 모습이 아름다우려니와 그 빛

칼도 모두 환하다. 바라보는 그 눈길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주근깨 투성이인 말괄량이 소녀같은 참나리를 기본으로 하여, 하늘을 바라 보면 하늘나리, 땅을 바라보면 땅나리,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중나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중나리 중에서도 유독히 몸에 털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털중나리」라고 부른다.

왜 이 중나리는 털을 이렇듯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을 성싶다.

옛날, 용모는 빼어나게 아름다우나 그 성질이 너무나 사나운 처녀가 있었다. 그 소문이 워낙 심하게 널리 퍼졌으므로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소녀에게 청혼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가 많은 한 젊은이가 용감하게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이 이루어졌다.

첫날밤이었다. 자정이 넘어, 신랑은 곤하게 자고 있는 신부의 이불에 물 한 사발을 쏟아붓고는 모르는 척 잠을 잤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신부는 깜짝 놀랐다. 첫날밤에 그만 오줌을 썼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또 있으랴. 신부는 그날 이후로 신랑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남편이 환갑을 맞게 되었다. 그 잔칫날, 즐거운 마음으로 술이 거나하게 된 남편은 이제는 진실을 밝혀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대뜸,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한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고 다시 사나워져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수염을 모두 뽑아버리고 말았다.

아, 그 여인이 죽어서 털중나리로 다시 태어난 것이나 아닌가. 남편의 수염을 몽땅 뽑아버린 그 벌로해서 그 몸에 많은 털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털중나리는 몸 전체에 털이 있으며 앞에도 양면에 잔털이 밀생한다. 그렇기에 아침이면 이슬이 눈물방울처럼 맺힌다. 마치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나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더욱 그렇다. ●

클·김재황 <시인>